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

Kwang Hwa Moon P.O. Box 393
110-603 Seoul, Korea
☎ (82-2)736-5725 Fax (82-2)736-5738

Seoul, April 29, 2008

Prot. N. 2609/08

Reverend Father Aloysius,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asked us to inform you about the recourse you sent to them.

Given the seriousness of this case, and following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and that Missionary Dicastery, all questions regarding the phenomena of Naju will be handled by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erefore all documents concerning this case, including your recourse, have been forwarded by the Office of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and please be sure of our prayers for a just and ecclesial resolution of this case.

Sincerely Yours in Christ,

Msgr. Stefano De Paulis
Chargé d'Affaires, a.i.

Rev. Fr. Aloysius Hong-Bin Chang
Honam Apartments C-520, 104-3
Sansoo-Dong, Dong-Ku,

KWANGJU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

Kwang Hwa Moon P.O. Box 393
110-603 Seoul, Korea
☎ (82-2)736-5725 Fax (82-2)736-5738

Seoul, November 7, 2008

Prot. N. 247/08

Dear Mr. Albino,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asked us to inform you about the correspondence you sent to them.

As you know all questions regarding the phenomena of Naju will be handled by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erefore your correspondence have been forwarded by the Office of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to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and please be sure of our prayers for a just and ecclesial resolution of this case.

Sincerely Yours in Christ,

Msgr. Stefano De Paulis
Counsellor

Mr. Albino KIM Dong-Myung
924-2 Doo-Am Dong
Buk-ku, Kwangju City

KWANGJU

한국주재 교황대사관
광화문 사서함 393
110-603 서울, 한국
전화 (82-2) 736-5725
팩스 (82-2) 736-5738

서울 2008년 4월 29일

Prot N. 2609/08

존경하올 알로이시우스 신부님,

인류복음화성성으로부터 귀하께서 그 성성으로 보내신 의뢰 사안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리라는 요청을 저희에게 보내 오셨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신앙교리성성과 복음화성성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나주의 현상들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신앙교리성성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의뢰를 포함한, 이 케이스에 관련한 모든 서류들이 인류복음화성성 사무실로부터 신앙교리성성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귀하의 친절한 배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케이스의 공정하고도 교회다운 해결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드릴 것임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명
스테파노 데 파울리스 몬씨뇰
대리 대사

장 흥빈 알로이시우스 신부님
호남 아파트 C-520, 104-3
산수동 동구
광주

주한 교황대사관
광화문 우편함 393
110-603 서울, 한국
전화: (82) 2 736 5725
팩스: (82) 2 736 5738

2008년 11월 7일 서울

Prot. N. 247/08

Dear Mr. Albino,

인류복음화성성으로부터 당신께서 그분들께 보내신 서신들에 관하여 당신께 연락드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주의 현상들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신앙교리성성에 의해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서한들은 인류복음화성성 사무실로부터 신앙교리성성으로 보내어졌습니다.

당신의 친절하신 배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케이스가 올바르게,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번역자 주: 또는 교회 담게) 해결되도록 우리들이 기도드릴 것임에 대해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Msgr. Stefano De Paulis
Counsellor

Mr. Albino Kim Dong-Myung
924-0 Doo-Am Dong
Buk-ku, Kwangju City

‘나주 율리아와그 관련 상황들’ 에 대한 교구의 입장 (2)

2009년 2월 24일

광주대교구는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한 주무 성성인 <신앙교리성>에서 작년에 보내온 서한(2008.4.24)을 접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공개하도록 전권을 위임 받았습니다.

이 서한은 전임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지한 결정이(1998.1.1)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문서의 원본은 광주대교구의 문서고에 보관되어있고, 그 사본이 서울에 있는 교황청 대사관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경하올 최 대주교님께,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 별도의 편지를 보내드리어,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최 대주교님께서 공지한 교령(2008.1.21)에 반대하여 교황청에 청원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최대주교님께서 처리하고 계시는 사건, 즉 환시를 보는 사람으로 알려진 윤(김) 율리아와 그의 신봉자들이 조장한 나주 사건이 사목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본 신앙교리성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 주교님의 전임자이신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께서서는 나주 문제에 대해 신앙교리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라고 공지(1998.1.1)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협의를 거쳐 내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 대주교님께서 내리신 결정과 후임자이신 최 대주교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대해 신앙교리성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교회 성무에 수고가 많으신 최 대주교님께 존경을 표하며, 늘 기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112/1993-27066)

나주 ‘기적’ 취재기

나주 성모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주로 내려갈 때 솔직한 저의 심정은 ‘지방에서 바람이나 쇠고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 준 사람은 수십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저는 문외한이므로 설사 제 눈으로 본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로 작성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앉아서 궁시렁거리기 보다는 현장을 둘러보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주로 내려갔습니다. 교회당과 경당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취재에 임했습니다.

성모의 집 도착 후, 대충의 설명을 들은 다음 혼자서 경당 안을 살폈습니다. 웨하스 과자보다 더 얇다는, 밀떡으로 만든 성체가 떨어져 내렸다는 천정은 높이가 5m 가량 되었습니다. 저 높이라면 종이가 훑날릴 텐데 입에 삼키는 조그만 성체가 곳곳이 떨어졌다는 것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7년간은 눈물과 피눈물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향유를 흘렸다는 성모상은 평범한 성물(聖勿)이었습니다. 괜히 취재하러 먼데까지 왔다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체가 떨어졌다는 바닥에 코를 대 본 순간, 참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향기가 스며 나오는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눈치 못 채게 경당 안에 꽂아놓은 꽃의 냄새도 맡아보고 여기저기 코를 대 보았지만 비슷한 냄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러 온다니까 일부러 향수를 뿌려놓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내일 다시 올 것을 기약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를 대강 끝낸 그날 밤, 나주 성모의 집 기적 여부를 조사한 신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3자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부인했던 조사위원 신부들이 저의 인터뷰 요청에 이런저런 점에서 기적이 아니라고 밝혔더라면 저도 납득했을 것인데,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광주교구를 찾아가 취재 목적을 말하고 만나절을 기다렸지만 취재에 응하는 신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신부

님이 기자가 목고 있는 여관 근처까지 찾아와 “기적을 믿는다.” 고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그리고 기적의 물이 솟아나오는 현장에서 유독 그 물 위에만 벌떼들이 모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제서야 공개하지 못할 사연이 교회 내부에 있다는 점을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 사연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취재를 끝내고 나주를 떠나면서 기적의 주인공 율리아 씨를 만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대신 율리아 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테이프를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저는 율리아 씨의 테이프를 틀어주고 들어 본 느낌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듣고 난 집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 준다” 고 말했습니다. 낭송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너무나 맑은 그 음색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오랜 기간 미용사 생활을 했다는, 팔자가 드센 여자의 목소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의 기적이 저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주를 갔다 온 지 한참 지난 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제 오피스텔 입구에서 나주에서 맡았던 그 향기를 다시 맡았던 것입니다. 제 오피스텔은 13층에 있는데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그 향기가 스며나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재빨리 바깥을 살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나오는 향기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는 두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급히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염치 불구하고 두 여자의 냄새를 주의 깊게 맡았습니다. 그 여자들의 머리칼과 몸에서도 향수 냄새가 났지만 나주에서 맡았던 그 향기와는 정녕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에서 맡았던 똑같은 향기를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의문을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
1998년 9월 1일